Vol.17
2013. Autumn

www.wjbus.co.kr

우진교통

협동조합형 노동자자주관리기업

우진교통(주)

photo by_
장범주 승무원

停/ 留/ 場/ 風/ 景/

백운동 마을에 가을이 오고 있다.

마을 초입은 벌써 코스모스가 한창이고
정류장을 둘러싼 아름드리 나무 군락에도
급한 마음은 벌써 가을 단풍옷으로 갈아입었다.

버스를 기다리던 주민은
가을 들녘으로 마음을 빼앗겼는지 보이지 않는다.

시내버스를 타고 내리며
가을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곳,

정류장 풍경이다.

우진교통
협동조합형 노동자자주관리기업

2013. Autumn
VOL. 17

「우진교통」 2013년 가을호 통권 17호
발 행 인 김재수
편 집 장 장범주
편집위원 김기승, 김경준, 김우규,
김진상, 정환준, 지희구
발 행 처 협동조합형 노동자자주관리기업
우진교통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75번지
Tel. 043. 297. 4011
http://www.wjbus.co.kr
제 작 처 기획출판 예당
충북 청주시 상당구 수동 437-2
Tel. 043. 259. 0202

cover story
청원관정리 백석정
소식지 편집팀

woojin essay

버스정류장 풍경 02

우진에세이 | 2013년 고령자 구성원의 공동체문화체험 | 04
은빛청춘들! 역사를 가슴에 품고 꽃이 되었습니다. / 대표 김재수

초대글 08
옥천신문 대표 이인재

우진인터뷰 10
우진미래성장위원회를 탐방하다

아름다운 사람들 13
5068호 허문영, 장사1복 승무원

소통하며 화통하다 14
승객과 승무원의 짧은 'Talk!'

칭찬합시다 16
5099호 윤석남 승무원

가족여행기 18
언제나 사랑한 수 밖에 없는 여행지, 제주 / 5097호 연춘식 승무원

culture life

건강코너 20
노인이란? / 충북대학교병원 인과 김재형 교수

시내버스로 떠나는 작은여행 22
노랗게 물든 진천으로 가는 길

우진 가족 이야기 26
나에게 우진은 또하나의 가족, 끝이다
/ 이정빈 (양이식 예비승무원 가족)

교통정보 27
안전운전은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 고객서비스지원부 장거부사고 승무원

woojin life

현장문화 28
우진야구동호회 / 우진Traffic / 신정섭 야구동호회 홍보담당
은빛청춘들의 역사문화기행 화보 /

노동에세이 30
현장과 함께 하는 노동조합 / 임경빈 노동조합대의원

woojin story

노동조합소식 31

Sketchbook 32

퍼즐 34

우진의 희노애락 35

은빛 청춘들! 역사를 가슴에 품고 꽃이 되었습니다.

우진교통이 협동조합형 자주관리기업으로 출범한 후 벌써 아홉 번째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곧 열 살이 됩니다.

출범부터 지금까지 올 곧게 함께 했던 고참 분(선배님)들은 어느덧 장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푸르른 청춘이 은빛으로 변하며 원숙함과 따뜻한 향내를 내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세월이기에 아쉬움은 없지만, 이 분들이 이겨냈던 빼곡한 어려움들을 생각하면 가슴 한 구석 시려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인지상정인가 봅니다.

우진교통 탄생의 산 증인이자 주역이십니다.

이런 선배님들과 두 차례 가을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약 70여명의 은빛청춘들이 두 모듬으로 나뉘어 1박2일 역사문화기행을 다녀왔습니다. 우진교통 인재양성 프로그램인 '자주관리교실' 학생들과 똑같은 일정이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한 분위기도 있었지만 관광버스가 남도를 향해 달리자 모두 아득한 어린 시절 수학여행처럼 설레임 가득 찬 시간여행을 떠났습니다.

첫 행선지는 광주 '국립5·18민주묘역' 입니다.

버스 안에서 우진 9년의 삶이 기록된 동영상을 보며 지난 세월을 회상하기도 했고, 정년 특별 연장에 관한 질의응답도 있었습니다. 버스가 태안을 지날 즈음 본격적으로 5·18민중항쟁에 관한 설명이 진행됩니다.

당시 시대상황과 역사적 의의, 공동체 정신, 그리고 광주민중항쟁이 노동운동에 미친 영향 등, 협동조합형 노동자자주관리기업 우진교통의 존재가치와 거마줄 같은 역사의 인연을 되짚었습니다.

드디어 망월동에 도착했습니다.

무등산은 여전히 의젓하게 민주묘역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님을 위한 행진곡'에 맞춰 분향소를 향해 걸으면서 역사의 상처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분향을 하며 광주의 고됨을 우진이 위로합니다.

마무리 평가에서 이 순간 모두들 소름 돋는 전율을 느꼈다 하십니다.

국가보훈처 비정규직이라는 해설사의 설명으로 마음을 추스린 후 정진동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아! 목사님, 우리 목사님. 예수가 노동자라 외쳤던 우리 정 진동 목사님! 얼마나 뜨겁고도 외로운 삶이었을까?

얼마나 고독하고도 의로운 삶이었을까?

우진 선배님들이 지금 그 아픔을 만지고 있습니다.

전교조 충북지부 초대지부장이셨던 권 영국 선생님도 만났습니다.

현재 두 번째 반복되는 비합법노조라는 전교조의 분노를 고스란히 품고 계신 분입니다. 돌아가시기 전 충주자택에서 우진의 비극적 역사를 귀 기울이며 듣고 있던 선생님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광주에서 남도식 돌개장정식을 맛나게 먹고, 저녁 해 떨어지는 변산을 향해 버스는 달립니다.

바다냄새 진한 국립공원 변산반도에 도착했습니다.

식권판매수입과 커피자동판매기 수입으로 '우진공동복지회'가 구입한 대명콘도에 여장을 풀었습니다.

첫 날 뒷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술잔이 돌자 인생이 돌고, 건배사가 외쳐지자 아물었던 우진의 상처가 다시 저려오고, 전어회 한 젓가락 입에 넣자 함께 살아온 시간이 고마워 눈시울 붉어지고, 옆 동지 손잡고 부르는 노래 한 소절에 그간의 고됨이 행복으로 바뀌는 감성이 넘쳐 주체 못하는 가을 밤 뒷풀이였습니다.

일부 선배님들은 변산의 바닷바람을 안주 삼아 새벽까지 여흥을 즐기셨습니다.

서해가 담긴 백합탕으로 아침식사를 하고 채석강에 들렀습니다.

이태백이 술에 취해 강물에 비친 달을 건지려다 빠져 죽은 강을 닮았다는 채석강에서 한번도 생성의 비밀인 칠천만년 간 퇴적된 영겁의 세월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면서 둘째 날 기행을 시작했습니다.

버스는 곰소만을 따라 마실길 옆을 달립니다.

변산을 똥구멍까지 다 보려면 모항을 가슴에 안아야 한다는, 안도현 시인을 떠올리면서 언덕배기에 서서 모항을 만났습니다.

단아합니다.

청초합니다.

이 아름다운 해변에서 자연의 기품을 느껴봅니다.

호랑이가 등 가려우면 비벼댄다는 호랑가시나무 북방한계 군락지도 덤으로 눈요기 하면서 내소사를 향합니다.

염전과 대하양식장과 노랗게 익어가는 논과 끝없이 펼쳐지는 곰소만 갯벌의 유려한 곡선이 어우러지는 황홀경이 펼쳐집니다.

드디어 화려한 절집 내소사에 도착했습니다.

관음봉이 뫼산(山)자(字) 형상으로 내소사를 호위합니다.

전나무 숲길을 걸으며 단체사진도 찍고 청량한 아침기운을 만끽합니다.

당산나무 앞에서 각각의 만복을 기원하고, 주춧돌과 나무기둥 길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화시켜 삼척 죽서루의 겸손함과 닮은 봉래루 아래를 고개 숙여 걸어갑니다.

드디어 대웅보전 앞에 섰습니다.

대웅보전 팔작지붕은 학 한마리가 능가산을 향해 날개 짓 하듯 역동적 자태로 꽃창살과 백의관음보살좌상을 품고 있습니다.

눈이 부시고 가슴이 벅찹니다.

선배님들은 탄성을 자아냅니다.

출범부터 지금까지 올 곧게 함께 했던 고참 분(선배님)들은 어느덧 장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푸르른 청춘이 은빛으로 변하며 원숙함과 따뜻한 향내를 내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세월이기에 아쉬움은 없지만,
이 분들이 이겨냈던 빼곡한 어려움들을 생각하면 가슴 한 구석 시려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인지상정인가 봅니다.
우진교통 탄생의 산 증인이자 주역이십니다.

역사의 흔적들을 따라 금강을 거슬러 가면
작은 지류 낙가천 끝 원봉산 아래에서 우진교통이 용트림하고 있습니다.
은빛청춘 우진 선배님들은 보살사에서 발원된 회사 앞 작은 냇물이 고된 여정을 마무리하는 이곳
금강 끝에서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며 우진교통의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來蘇寺

우리는 대웅보전 축대위에 서서 걸어온 길을 향해 뒤돌아 바라보며 부처의 시선으로 능가산 산줄기와 내소사 기와지붕선을 눈에 담습니다.

만날 듯 헤어지고 헤어질 듯 만나는 지붕의 선(線)과 산 능선이 어우러지며 만들어낸 가을 하늘이 애절하고 그리운 백제 역사의 여백인 듯 합니다.

아마 관음봉 너머 개암사와 울금바위 그리고 진표율사의 부사의방(不思議房)과 미륵사상이 떠올라서 그랬나봅니다.

직무자치, 자주관리 우진교통이 중소영세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작은 힘이나마 된다면 그것이 진표율사가 꿈꾸던 미륵사상이 아닌가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절집에서 내려와 변산반도 북쪽에 있는 구암리를 향합니다.

가는 길에 곰소 젓갈가게에 들려 선물들을 구입합니다.

김장철이라 그런지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삼삼오오 흩어져 무슨 젓갈을 살지 집에 계신 사모님들과 통화하는 모습이 평화롭기만합니다.

가을 햇살이 따가워질 무렵 구암리 지석묘군(群) 즉 고인돌무리에 도착했습니다.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세워진 청동기 시대 권력자들의 무덤군(群)입니다. 고인돌이 표현해주는 사회발전단계와 권력의 크기, 동원된 노동력, 거대한 돌의 이동방법과 돌을 쪼개는 지혜 등에 관한 담소를 나누며 죽어 있는 돌덩이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우진 선배님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새만금을 건너 군산을 향해 버스는 달립니다.

도중에 새만금건설반대 투쟁본부 컨테이너 사무실이 날개 잃은 솟대 몇 개와 함께 쓸쓸한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강을 가로막아 땅과 물의 생명을 소멸시켜 가는 4대강 사업이 국토에 대한 내란죄이듯 새만금 사업은 후대에 어떻게 평가될까 생각해봅니다. 이어서 특별히 초청 받아 동행한 부안 출신 24기, 25기 막내 신입사원이 새만금으로 인한 부모님들의 파괴된 생존여건을 토로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 기행지인 근대문화유산의 도시 군산에 도착했습니다.

'군산에는 한주옥 식당이 있다' 는 자부심 가득 찬 식당 벽 문구처럼 맛난 음식을 포만감 넘치게 즐겼습니다.

식사 후 군산내항으로 향했습니다.

식민지 시절의 근대문화유산이 즐비한 곳입니다.

일제와 관련된 근대문화유산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호남평야에서 생산해낸 곡물을 수탈해간 물량이 엄청나다는 역사의 징표입니다. 부산 목포와 더불어 한국에서 최초로 부두노동자들이 형성되고 일제에 의해 노동력을 착취당한 수탈의 현장입니다.

조선은행, 세관 등 근대문화유산을 뒤로 하고 부잔교에 서서 가을 금강을 바라봅니다.

수탈의 도구, 육지와 바다의 연결컵, 자본과 노동의 순환고리, 일본과 조선의 운명컥 연결을 상징하는 부잔교에 가을 금강이 걸려있습니다.

고려 최무선장군이 최초로 화약을 사용하여 왜적을 물리친 진포대첩, 백제와 왜의 연합군과 신라와 당의 연합군이 백제부흥의 명운을 걸고 싸운 백강전투, 역사의 흔적들을 따라 금강을 거슬러 가면 작은 지류 낙가천 끝 원봉산 아래에서 우진교통이 용트림하고 있습니다.

은빛청춘 우진 선배님들은 보살사에서 발원된 회사 앞 작은 냇물이 고된 여정을 마무리하는 이곳 금강 끝에서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며 우진교통의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막바지 행선지인 한국 내 유일한 일본식 조계종 사찰 동국사를 둘러보고, 일제시대 군산지역 상업자본가의 상징인 히로쓰 가옥도 살펴보며 은빛청춘들의 시간여행도 서서히 마무리되어 갑니다.

청주로 돌아가기 전에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빵집에 들렀습니다. 손님이 너무 많아 줄 서서 기다려야하고 그나마 1인당 열 개씩 한정된 빵만을 살 수 있는 이성당입니다. 겨울철 현장순회가 시작되면 구성원 여러분들께 나누어 드리는 빵이 바로 이곳 이성당 팥앙금빵입니다.

왜 이성당 빵집은 수십 년 간 군산 시민들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을까?

정성과 건강이 담긴 빵만을 만들고, 빵을 만드는 노동자들이 친절과 신뢰로 생산관계를 형성하고, 직영농장에서 원자재를 직접 재배하는 수직계열화를 이뤘기 때문입니다.

비법은 특별한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새삼 평범함과 정직함의 위력을 느껴봅니다.

우진교통이 많이 배우겠습니다.

선배님들의 가족선물로 회사가 사전예약한 이성당 빵 상자를 버스에 싣고 청주로 돌아갑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뒤 간식을 먹으며 여행의 소감을 나눕니다.

곧이어 마지막 여정을 불태우는 버스노래방이 열리며 은빛청춘들의 역사문화기행은 마무리됩니다.

20여 년 만의 여행이라는 어느 은빛청춘의 문화충격,
살아온 청춘을 술잔에 담아 건배하는 살가운 삶의 온기,
우진이 자랑스럽고 그런 우진을 만든 자신과 동료들이 대견스러워 울먹이는 천진함,
이 모든 것을 가슴에 묻으며 버스노래방은 청주를 향해 달려갑니다.

**노래 부르는 얼굴마다 편안함이 묻어나고,
사진 속 얼굴마다 '행복하세요'를 외치는 은빛청춘들이 2013년 가을에 행복한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꽃은 하늘 아래 땅 위에서만 피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의 가슴마다 삶 속에서 피는 것임을 알게 해준 역사기행이었습니다.

은빛청춘 선배님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은빛청춘 들! 역사문화해설담당
협동조합형 노동자자주관리기업 우진교통
대표 김 재 수

20여 년 만의 여행이라는 어느 은빛청춘의 문화충격,
살아온 청춘을 술잔에 담아 건배하는 살가운 삶의 온기,
우진이 자랑스럽고 그런 우진을 만든 자신과 동료들이 대견스러워 울먹이는 천진함,
이 모든 것을 가슴에 묻으며 버스노래방은 청주를 향해 달려갑니다.

東國寺

지역과 사람이 우선되는 사회를 꿈꾸며

옥천신문은 창간 이후
주민들이 피해의식을 가질 정도로 기성 언론이 하고 있던
여러 사이비 행태를 철저히 배격하고
제대로 주민들의 눈과 귀, 그리고 입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주민들에게
편지를 쓰는 심정으로 신문을 만들어 나갔다.

이 안 재
옥천신문 대표

옥천신문은 인구 5만3천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옥천이라는 작은 지역에서 발간되는 지역 주간신문이다.

중앙집권적 시각에서만 본다면 인구 몇 만 명에 지나지 않는 작은 지역의 일은 너무 작아 보이고, 큰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지역은 그 자체로 소우주이다.

옥천은 행정이 있고, 정치가 있으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봉사로 작은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터전이다. 그런 면에서 소위 중앙과 지역은 같다.

굳이 구분하자면 좀더 큰 일, 국가적인 일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행정을 맡고 있는 지방정부가 구분될 따름이며, 서울은 전국적인 의미에서 서울이라는 또 하나의 지역이다.

날씨를 예보할 때 서울을 중앙이라고 하던가?

서울, 경기 지역이라고 한다. 그래야 맞다. 서울은 중앙이고, 지역은 지방이어서 중앙에 비해 하위개념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지역으로서 별도의 특성을 가진 지역이라는 수평적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오늘날 전국에 수백 개가 넘는 엄청나게 많은 지역신문사들이 있다. 인터넷 신문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훨씬 많아진다.

1883년 우리나라에서 가장 처음 만들어진 한성순보는 한성(서울)이라는 지역에서 만든 열흘에 한 번씩 나오는 신문이라는 뜻이니, 우리나라 첫 신문은 지역신문이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 같은 신문들도 발행되는 위치가 세계 경제, 정치 중심이어서 그렇지, 뉴욕이나 워싱턴 지역을 주요 시장으로 하고 있는 지역신문이다.

옥천신문은 지역 내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취재하고 의미를 따져 주민과 독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구실을 하고 있다.

1989년 9월30일 창간했으니 이제 스물네 돌을 막 넘겼다.

옥천신문의 탄생은 제4의 권력이라고 불리던 막강한 신문 권력이 낮은 데를 비추지 못하고 언론 본연의 기능인 사회비판과 감시,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다, 일반 국민들의 대언론 피해의식이 높아져 있던 상황에서였다.

기자들이 민원을 취재하고 신문에 기사를 낼 때도 촌지는 다반사였고, 잘못된 내용으로 보도되어도 제대로 신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었던 때였다. 주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야 할 신문이 권력이 되었던 것이다.

이때는 1987년 민주항쟁의 부산물로 사회적 민주화의 틀이 논의되고, 1991년부터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기로 한 결과가 지역 주간신문의 탄생을 낳게 했다.

1988년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국민주 신문 한겨레신문의 탄생을 지켜봤던 옥천에서는 오한흥씨를 비롯한 몇몇 뜻있는 이들이 지역신문 창간을 준비했고, 마침내 옥천군민 200여 명이 뜻을 모아 옥천군민주 신문 옥천신문은 탄생했다.

옥천신문은 창간 이후 주민들이 피해의식을 가질 정도로 기성 언론이 하고 있던 여러 사이비 행태를 철저히 배격하고 제대로 주민들의 눈과 귀, 그리고 입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주민들에게 편지를 쓰는 심정으로 신문을 만들어 나갔다.

지역권력을 감시, 비판하고 올바로 지역이 굴러갈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창간 이후 1206호가 나온 지난 10월18일까지 갖은 재정적 어려움 등을 무릅쓰고 권력이나 자본의 외압에 의해 단 한 번도 신문 발행을 중단했던 사례 없이 일주일에 한 번씩 독자들을 찾았다. 물론 휴가철이나 명절 때는 어쩔 수 없었지만.

비록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어려운 살림살이 속에서도 철저한 편집권 독립과 김규흥, 조동호, 정지용, 송건호 선생 등 우리나라 근현대 언론사를 이끌었던 선배 언론인들의 얼을 이어받아 2000년대 초반 언론개혁 운동의 선두에 섰고, 그 정신은 오늘날에도 옥천신문의 전통이 됐다.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는 우진교통에 대한 얘기를 들으며, 감탄과 존경을 보낸다. 이렇게 움직이는 기업이 있다니 그 구성원들의 공동 노력에 경의와 찬사를 금할 수 없다. 일반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이해못할 일이다.

지역이 살아나야 나라가 산다. 그 지역을 움직이는 것은 뜻있는 사람들이다. 지역과 사람이 중시되는 사회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하는 까닭이다.

02

01 이상일
02 김태경, 김태용B
03 왼쪽부터 신창희, 정국진, 김인우, 류성열, 이상일, 지희구
04 류성열
05 정인권, 박우용

우진 **미래성장위원회**를 **탐방**하다

미래성장위원회의 출범배경과 **역할**을 다시한번 **소개**해주세요

2012년 전체 구성원 자주관리워크샵에서 우진교통의 미래전망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출 되었다.
이 중에는 충분히 실현가능한 내용들도 있었으며, 이 의견들을 모아 2012년 제11차 자주관리위원회에 제출,
'향후 10년 전망에 대한 대책 수립' 의 필요성을 공유하였다.
그리고 우진교통의 미래전망을 위하여 단시안적 대책만이 아닌 거시적 측면에서
우진교통의 미래를 준비하는 '우진교통미래성장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취재 _ 김경준

04

03

우진교통미래성장위원회는 크게 미래소위원회와 성장소위원회로 구분하여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 소개해주세요.

신창희간사 :
먼저, 미래소위원회는 백광수 정인권 박우용 김진상 김태용(B) 김태경(간사)로 구성되어있고 주 활동영역은 규정, 제도, 복지, 직무자치, 공동체, 경영조직체계 등에 대한 것이었다.
그리고 성장소위원회는 지희구 이상일 류성열 정국진 김인우 신창희(간사)로 구성되었으며 활동내용은 신사업진출, 토지 및 설비투자, 협동조합전환, 공제사업, 임금(배분)수준 방향 등에 대한 것을 연구조사 하는 것이었다.

실제 시내버스 운행 업무를 하며 회사의 미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영역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영역별로 연구조사 하신 것, 또한 토론회와 대표님 간담회도 진행 하였는데 활동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이상일 :
기초자료 학습부터가 어려웠다. 자유토론 위주의 진행 방식도 낯설었으며 신사업관련 영역에서는 현장노동자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 때, 특히나 나 자신의한계가 드러나는 것 같아 아쉬웠다.

류성열 :
운수업 종사가 주 업무이다보니 회사의 미래 성장을 위한 동력가치 창출이라는 과제가 중압감으로 다가왔다.

김인우 :
현장에서 미래성장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을 알고들 있었는데 그래서인지 구성원 분들이 "회사의 큰 틀에서 사업할만한 가치적인 것을 창출하였냐"고 궁금하여 물어보고들 하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거나 발상한 것이 부족하여,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 같아 부담스러웠다.

정인권 :
운전 이외에 새로운 것을 하려 하니 다양한 경험의 부족함을 느꼈고, 그 부분에 대하여 내 자신이 작아지는 느낌을받았다.

김태용B :
창의적 발상을 하여야 하는데 지식의 부족이랄까..어떠한 주제에 대하여 출발점을 못찾아서 어려웠다.

신창희 :
사실 신사업 구상자체가 부담되었어요. 더구나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모델을 찾아내는 일이 정말 쉽지 않았죠. 하지만 덕분에 이러저러한 자료공부도 된 것 같아 의미있었다.

김태경 :
앞에서 말씀한 부분에 많은 공감이 간다, 또한 역할 말은 것에 비하여 정해진 시간의 부족함을 느끼고, 그동안 상상, 고민한 것 등을 정리할 때,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이것이 맞나? 창의적인 것을 억누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초반 모임이 다소 허황됨과 붕 떠있는 진행이 있기는 했지만 다행히 모두들 지금까지 잘하고 계신 것 같아 감사할 따름이다.

05

지희구 :
그래도 기초 자료 공부하고 토론할 때와 몬드라곤 사례 동영상 시청할 때가 제일 기억이 난다. 우진교통을 객관화하면서 주변에서의 평가내용에 대한 자료들을 기초로 미래전망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요. 「한국기업의 경제민주화(강수돌교수)」, 「한국형 자주관리기업 발전방안 연구(백일교수)」, 「우진교통의 협동조합전환에 관한 연구(사회투자지원재단)」 등이었는데 이 자료들을 접하며 기업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하며 약간은 들뜬 상태로 기분좋은 첫출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특히 몬드라곤 사례를 보며 우진교통이 이미 미래 희망을 위한 대열에 진입했음을 느끼게 된 계기이기도 했다. 모두들 근무하며 활동하느라 힘들었을텐데 진지하게 임하는 모습에 귀감이 되었어요.

시간은 많이 부족했겠지만 그래도 창의적 발상을 위해 기초자료 공부도 하고 새로운 공간에서의 토론, 사례 영상 시청 등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7개월의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 변화한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상일 :
그나마 자료학습 경험이 있다보니 개인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었고 위원회 활동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어요. 나이가 많은 편이었는데 씩씩하게 따라잡느라 고생했다.^^ 솔직하게 말하면 자료공부도 2~3배는 더 했다.

06

06 왼쪽으로 부터
박우용, 김태용대, 정안권, 백광수, 김태경

김안우 :
굉장히 의욕적으로 위원회 활동에 빠져 들었다. TV나 사물을 볼 때조차도 적극적으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애쓰는 나 자신을 볼 수 있었다.

정국진 :
몬드라곤 동영상 자료를 공부한 이후, TV에서 협동조합 관련 프로그램을 시청하게 되었는데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관심있게 보아졌다.

박우용 :
예전에는 현실에서 벗어나지 않는 생각을 많이 했다. '나를 희생하면서 회사를 먼저 생각하여야 하는가?' '모두들 변하고 있는데 나만 멈춰버린 것은 아닌가' 한번 더 뒤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토론의 두려움도 없어지고 그래서인지 그간의 여러 활동을 하면서 쌓였던 경험이나 내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털어 놓을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김태용 :
집에서 한시적이나마 모범적인 가장의 모습을 보여 준 것 같다. 예전에 집에서 TV시청하기 바빴는데, 지금은 책과 자료를 찾아보고 아들과 복지에 대하여 이야기도 하는 등.... 이 활동이 나에게 일상적으로도 변화를 주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김진상 :
자주관리기업이라는 특성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었다. 갑자기 주변 일들이 바빠져서 집중할 수 있는게 부족했는데 오히려 이 활동이 나에게는 도움이 되어 감사하다.

정안권 :
우진에 오기 전과 후의 내 모습이 변했다. 어느 날부터 큰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자료를 정리하는 나의 모습이 발전으로 가는 계기가 됨을 느꼈다.

김태경 :
현장 구성원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게 되어 좋았고, 우리의 행복 만족도가 급여 수준에 의하여 결정 되는 것만이 아니라 인식, 문화, 삶의 환경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램도 생겼다.

류성열 :
우리 성장소위원회의 집단적인 큰 변화는 모두 큰 가방을 들고 다닌다는 것이다. 자료들이라도 들고다니지 않으면 불안해서인지 절로 그렇게 되었는데 나중에 보니 정말 학술연구원같았다.^^

협동조합으로서의 전환과
차고지확보방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들도 오가는 자리였다.

워크샵을 통해 집중토론회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무엇인지.

신창희 :
미래성장위원회 워크샵을 추진한 것은 그동안 각 소위별로 논의한 것들에 대한 집중토론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소위별 영역들에 대한 확장 토론도 했지만 협동조합으로서의 전환과 차고지확보방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들도 오가는 자리였다. 우진교통의 미래전망에 큰 획을 가지는 사안들이기에 대표 간담회도 하면서 많은 의견들을 제출, 토론할 수 있었다.

이런 저런 일들이 있었을텐데 기억에 남은 활동이 있다면

김안우 :
회사의 회의실 말고 커피를 마시면서 기부 문화가 있는 북까페에서 토론한 일, 분위기, 환경 자체가 좋았다.

류성열 :
워크샵 가서 새벽4시까지 토론(격론)을 펼쳤던 일이 기억난다.(술기운을 빌려서...)

박우용 :
"취중진담" 밤새 술마시고 토론한 것, 걷기도 하며 소소한 이야기 나누는 것들이 모두 기억에 남는다.

김진상 :
선진지 견학이나 역사문화여행, 공동워크샵 등도 하기로 했는데 하지 못했다. 편안하게 뇌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을 제대로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그래도 바쁜 시간 쪼개서 산성길도 걷고 영화도 보고 한 것들이 기억에 남는다.

향후 미래성장 전망은

김진상 :
"나의 미래가 곧 우진의 미래다" 결론은 최선을 다할 수 밖에 없는 귀결점이다. 다양한 관점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 미래발전을 위하여 논의하면 매우 좋을 것 같다.

류성열 :
미래성장위원회 활동을 하다보니 향후 우진이 급성장, 발전을 하다 본업인 운수업을 접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우진의 미래 성장은 매우 밝다고 본다.

이상일 :
신사업 등을 통한 도약을 준비하다보니 삶의 관점이 변했다. 젊은 시절 알았더라면 내 인생에 더 철저를 기했을 것이다.

서로들 부족한 것이 많고 힘들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들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우진은 만들어 가는 것이며 현재도 진행 중이라는 것을.
여기 모이신 분들은 가정에서나 회사에서나 제 역할에 대해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회사 일정도 많으실 텐데 동떨어져서 미래성장을 위해 집중해서 구상을 하려다보니 지식의 한계를 많이 이야기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분들의 주된 업무가 운전입니다.
자신의 영역을 벗어나서 새로운 것을 찾는 이들에게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 하나 알아가면서 우진 미래를 설계하시는 우진미래성장위원회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5068호

가을 햇살을 받아 누렇게 영그는 황금빛 들녘.

수줍은 듯 고개를 살랑살랑 흔드는
색색깔로 핀 길가의 코스모스.
맑고 높아 끝이 보일 것 같지 않은
청명한 가을 하늘
이처럼 아무 조건없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자연의 아름다움에 고개들어 한번쯤
하늘을 바라보는 여유를 가지는 건
어떨까요?
이번 호에는 때묻지 않은 순수함으로
애틋한 정을 나누며 서로에 대한 배려와
믿음으로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가는
5068호 허문영, 장시목 승무원을
소개합니다.
이 두 승무원은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
탓에 모임이나 회식자리에선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싫은
내색없이 잘 들어주는 마음 씀씀이
따뜻한 동료로 인정받고 있답니다.
외모는 상반되지만(?) 성격만은 친형과
아우라고 해도 될만큼 둘이 닮은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2010년 10월, 전 짝꿍이 개인사정으로
인해 퇴사하게 되면서 순번에 의해
짝궁이 되었는데
3년이 넘도록 서로 싫은 소리
한번 하는 걸 보지 못했다고
주위 승무원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유가 뭘까?
이리저리 알아보니 두 분 다
자주관리교실 학생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료에 대한 존중과 배려,
공동체에 대한 이해,
자주관리기업에 대한 이해 등의 교육을
받으며 그래도 이런 좋은 점들이
더 빛을 발한 것이 아닐까합니다.
우리는 가끔 차량의 문제나 운행의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남의 탓으로 돌려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두 승무원은 알아서 먼저
해주기 때문에 서운함과 아쉬움보단
고마움을 먼저 말한다고 합니다.
평범한 만남으로 시작되었지만 소중한
인연으로 퇴사하는 날까지 이어갔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다는 두 승무원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 짝꿍과 교대를
하면서부터 새로운 마음이
다시 시작되어 안전운행을 하는
우진교통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아름다운 사람들

허문영 + 장시목 승무원

취재 _ 김진상

승객과 승무원의 짧은 Talk!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찐다는 天高馬肥의 계절입니다.
옛말에 밭에 일을 보낼 때 봄 햇살엔 며느리를 내보내고, 가을 햇살엔 딸을 내보낸다는 말과 같이 햇살 좋은 가을을 몸으로 직접 느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번 호에는 우리 청소년(중·고등학생)의 발이 되어준 시내버스의 승무원과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취재 _ 김우규

승무원 ▸ **청소년들에게 시내버스는 어떤 의미일까요?**

학생 ▸ 우리에게는 둘도 없는 편리한 교통수단입니다. 우리 같은 학생들도 편하게 택시를 타고 싶습니다. 하지만 전국에 있는 학생 대부분이 부모님께 용돈을 받고 그 일부를 나누어 버스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버스가 불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청주시내에서는 버스가 자주 있고 환승까지 되니 우리 같은 학생들에게는 중요한 교통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승무원 ▸ **시내버스를 이용하면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습니까?**

학생 ▸ **좋은 점은**

택시보다 싸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목적지까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점으로는

버스에서 자리가 없어 서있을 때 빠른 속도로 커브길을 돌 때 힘이 듭니다.

신호위반을 너무 많이 합니다. 저번에는 신호가 빨간색인데 버스기사님께서 위반을 하다가 행인을 칠 뻔한 것을 보았습니다.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류장에 학생이 1명 정도 있으면 시내버스는 정류장에 정차를 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승무원 ▸ **학생들 앞에서 부끄러워지는군요. 그리고 바쁜 시간대에 운행을 하다 보니 마음이 급해져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신호위반 없는 시내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생 ▸ 버스기사 이저씨께 부탁이 있습니다. 야간에 시골 들어가는 막차는 학생들을 살펴가면서 꼭 태워주세요. 10시가 넘어 시골 들어가는 차를 놓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학교를 마치고 달려야만 차를 타야하는 현실이 너무 힘이 듭니다.

승무원 ▸ **버스승무원들도 일을 마치고 집에 가려고 하니 급해졌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의와 관심을 갖겠습니다.**

학생 ▸ 버스 시간이 잘 맞지 않습니다. 정류장에서 기다리면 몇 분 후 들어온다는 버스가 사라집니다.

학생 위에서 부터
정준성
정세인
방승원
이지수

승무원 ▸ **교통 시스템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시청(교통정보센터)에 건의하여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 ▸ 그런데요, 아저씨, 우진교통에서는 이렇게 학생들과 시민의 불편함을 취재합니다. 하지만 청주시에 있는 6개 회사 중 1개입니다. 우리가 이야기 해봤자 우진교통은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관심을 기져주겠지만 나머지 5개 버스회사는 우리들에게 관심을 기져줄까요?

승무원 ▸ **우리 우진교통에서는 소식지를 만들고 이런 취재 내용을 청주시내버스 회사들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힘들더라도 조금씩 달라지는 청주시내버스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승무원 ▸ **시내버스를 운행 중 정류장에 도착했는데도 버스를 타지 않고 스마트폰만 보다가 버스가 출발하면 그때 뛰어와 버스를 타려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학생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생 ▸ 스마트폰을 보다가 버스를 놓치는 것은 우리 학생이 잘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개선해야할 점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이 대중화 되다보니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자동으로 스마트폰을 만지게 됩니다. 온통 생각이 스마트폰으로 빠지다 보니 버스를 못타고 늦게 타는 일도 있습니다.

바쁜 시간 취재에 응해주신
승객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취재에 협조해주신 분 들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승무원 ▸ **정해진 버스시간에 운행을 하려면 승객들이 타고 내리는 것이 자연스러워야하는데 학생들이 일반카드를 가지고 학생으로 찍어달라고 합니다. 몇 명 안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는 버스가 정류장에 지체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일반 카드를 학생으로 바꾸어 찍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학생은 학생카드를 가지고 다니면 좋겠습니다.**

학생 ▸ 요즘 카드는 카드구입 후 학생등록을 해야 학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카드구입 후 인터넷으로 학생등록을 했는데도 학생카드로 사용이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카드를 사용할 때 시내버스 기사님들이 왜 학생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카드를 사용하냐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카드를 다시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잊어버려서 그리고 카드등록을 하지 못하고 저같이 등록이 안되서 일어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잊지 않고 학생등록을 하여 사용하려고 하고 있으니 버스기사님들도 나쁜 시선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승무원 ▸ **네, 알겠습니다.**

승무원 ▸ **시내버스기사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습니까?**

학생 ▸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버스기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내버스 기사님들이 시민들과 우리 같은 학생에게 웃는 얼굴로 맞이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앞으로도 더욱 친절하고 안전 운전하는 기사님들을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승무원 ▸ **네, 감사합니다. 항상 승객분들과 소통하여 시내버스 이용이 화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존경받고 존경하는 선후배동료가 되길 바라며
모두에게 귀감이 되어 칭찬받는 그날을 만들어 가는 코너입니다.

넉넉한 마음을 느끼게 하는 **윤석남** 승무원을 **칭찬**합니다

취재 _ 김우규

누군가는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윤석남

시원한 가을 바람과 청명한 가을 하늘을 올려다 본적 있으신가요
없다면 오늘 한번 느껴보세요
내 마음속 모든 것을 힐링 할 수 있을 것 같은 가을입니다

이번 소식지에서는 우리가 보아도 넉넉한 마음을 느끼게 하는 윤석남승무원을 소개하려합니다

■ 윤석남승무원님 안녕하세요? 이번 소식지에서 '칭찬합시다' 의 주인공으로추천되었습니다.
"제가요, 잘못 알고 찾아오신 거 아니예요? 다시 한번 잘 찾아보세요"
■시내버스를 운전하다보면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텐데 윤석남승무원은 친절민원이 여러차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한 것은 운전 밖에 없는데 승객들이 좋게 봐주신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웃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네요.
만일에 무뚝뚝한 표정이면 아무말 안해도 불친절 민원이 들어올 듯한 얼굴이신데, 주변에서도 그런 말 하는 것 들어보셨죠? 어떠세요? ㅎㅎ
"네, 그러다보니 오히려 조금만 상냥하게 하고 인사만 잘해도 더 좋게 봐주시는 것은 아닌가 해요."

실제 윤석남 승무원에 대한 칭찬은 친절서비스 만이 아닙니다.
동료 승무원들은 윤석남승무원이 운행할 때 맨 앞 선두를 하면서 몇 달 만에 돌아오는 노선의 바뀐 도로사정과 여러가지 바뀐 점을 뒷 순번 차량에 잘 알려 준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교통관리위원회 총무직도 맡게 되었습니다.
남을 위해 봉사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텐데 본인 스스로 하겠다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어 해당지치모임은 벌써 의욕과 활기가 넘친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신 윤석남 승무원님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동료승무원들에게 행복 바이러스를 많이많이 전해줘 행복한 직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사랑할 수 밖에 없는 여행지 제주

연춘식 / 5097호 승무원

우리 가족은 여행다운 여행을 처음으로 떠난다.
둘째 아들은 냇가나 무심천을 보면 바다라고 말한다.
바다를 각인시켜주기 위해 여름휴가를 국내 최고의 휴양지, 그리운 섬,
아름다운 섬나라 제주도로 떠나기로 했다.

1월에 예약을 하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니 아이들의 얼굴에서 달덩이처럼 환한 미소를 발견 할 수 있었다.

출발 1주일 전부터 우리가족은 여행을 간다는 설렘을 서로 간에 느끼며 매일매일 여행코스 알아보기에 바빴던 나날들이었다.

드디어 제주항공 비행기를 타고 약 1시간에 걸쳐 제주도에 도착해 제주공항의 야자수와 북적북적한 사람들과 짐들이 가득한 걸 보니 이제야 여행 온 실감이 느껴진다. 렌터카를 빌린 뒤 제일 먼저 간 곳은 유명한 '제주 흙돼지 식당' 이다. 나는 맥주 1병을 시원하게 들이키고 식구들은 맛있는 흙돼지 요리를 폭풍흡입 한다. 식사를 마치고 콘도에 도착해 짐을 풀어놓고 '테지움 사파리' 로 향했다. 이곳은 봉제인형으로 동물모형을 제작하여 전시하고 있는 새로운 개념의 박물관이다. 이곳을 벗어나 다음 장소인 '오설록 녹차밭' 으로 갔다. 100% 유기농 세계 3대 녹차 산지로 손꼽히는 최고의 차 재배지이다. 체험공간도 있고 다양한 종류의 차와 그 밖의 차들, 화장품 등이 있다. 오설록 건물 전망대에서 바라보니 녹차밭이 온통 파릇파릇, 푸릇푸릇 하다.

여기저기 초록색 이다보니 시력 또한 좋아지는 기분이고 머리 또한 상쾌해지고 잠시나마 힐링이 되었다.

이 좋은 기분을 갖고 '외돌개' 로 향했다. 이곳의 기암절벽 중 가장 눈에 뛰는 것이 20m 높이의 암석이며 올레 7코스가 유명한 곳이다. 첫째 날은 정신없이 이렇게 일정을 마치고, 콘도에서 안사람과 한 잔의 술을 나누며 내일의 멋진 가족여행을 기원하는 아이들의 건배사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을 청했다.

둘째 날은 아침부터 아이들이 햄버거를 먹자고 한다. 제주에서 제일 큰 사이즈의 햄버거를 판다는 햄버거 집을 향했다. 주문을 하자 케익만한 햄버거가 나왔다. 이렇게 큰 햄버거는 처음 보고 이렇게 맛있게 먹어본 적도 처음인 듯하다. 이 곳에서의 좋은 추억을 담고 에메랄드 바닷빛을 자랑하는 해수욕장으로 이동했다. 바다를 본 아이들은 신명나서 오두방정을 다 떨며 환호성을 지른다. 아이들은 아이들인가 보다.

8월 첫째주가 극 성수기라서 그런지 해수욕장은 인산인해를 이뤘고 아이들은 물고기가 물 만난 듯이 바닷물에서 나오지 않으려 한다. 제일 재미나고 제일 신나 하는 것 같아 내 기분까지 좋았고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얼굴들이 꽃보다 아름다워 보였다.

다음 장소는 '에코랜드' 이다.

제주도의 자연을 몸소 느끼며 기차도 타고, 좋은 공기와 자연을 벗삼아 가족들과 같이 워킹을 할 수 있어 좋았고 햇볕이 내리쬐는 찜통더위에도 우리 가족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리고 아이들의 하이라이트인 '제주 아쿠아 플라넷' 을 향했다. 형형색색의 물고기와 다양한 해양생물 및 물개쇼, 바로 앞에서 펭귄을 볼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수조아래 통로에서 대형 가오리와 상어가 지나가는 모습도 체험해 보고, 수많은 물고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아쿠아 플라넷의 대형수조가 제일로 장관이었다. 수조 앞에 관람석도 마련되어 있고 제주해녀의 물질공연 등을 관람할 수 있었고, 아이들은 엄청 신기한지 바다에 들어와 있는 기분이란다. 애나 어른이나 머리를 둘레둘레 가만 두질 않는다. 근처엔 성산일출봉과 섭지코지가 있고 마지막으로 천제연 폭포를 들러 제일 멋진 포즈로 가족사진을 찍고 여유를 즐기며 아름다운 제주의 정기를 받고 콘도로 돌아와 제주도의 마지막 밤을 화려하고 멋지게 장식했다.

셋째날 새벽엔 제주 바다로 떠오르는 일출을 보기 위해 졸린 눈을 비비며 기상했다.

생동감 있고 정열적인 붉은 태양을 보며 내 가정 항상 행복하고 운수대통되게 해 주소서, 우리 회사 우진교통 건강하고 튼튼한 회사되고 만사형통되게 해 주소서 성심성의껏 두 손 모아 빌었다.

제주도는 언제 찾아가도 대한민국의 최고의 여행지이며 푸른 바다와 어디를 둘러봐도 아름다운 곳이기에 언제나 사랑 할 수밖에 없는 여행지라 생각한다.

더구나 자주관리 학생으로 다녀왔을 때 이 모든 추억과 큰 행복을 가슴깊이 담고 가슴깊이 느끼고 가슴으로 배웠으니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

'우진교통' 의 행복한 갈 길을 생각해 본다면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제주도의 푸른 바다와 같이 구성원간 가슴으로 서로 서로 보듬어주고 배려와 소통, 대화와 타협으로써 마음의 눈으로 넓고 깊게 보고 마음의 중심을 잡고 어느 장소 어느 환경에 서든 당당하고 떳떳하게 설 수 있다면 의식수준 또한 높아져 우진교통은 행복한 회사 튼튼한 회사가 되어 강물이 흐르듯 잘 흘러가리라 본다.

여기까지 이 글을 읽은 모든 구성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댁내에 웃음과 행복이 넘쳐나길 빕니다.

우진교통 파 · 이 · 팅!!!

행복하세요.

노안 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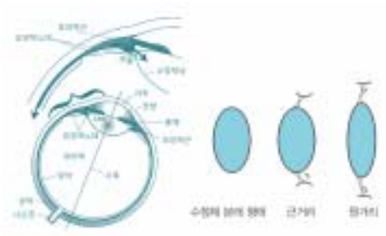
김재형
충북대학교병원 안과 교수

1. 노안 (presbyopia)이란?

노안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까운 곳을 볼 수 있는 능력 (조절력)이 부족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 명칭인 'presbyopia'는 그리스어 'presbys (elderly)'와 'opos (eye)'의 결합으로 유래된 말로, '오래된 눈'을 뜻합니다. 가까운 곳을 볼 수 있는 능력 즉 조절력은 주로 눈의 수정체의 두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입니다. 먼 곳에 있는 물체를 보다가 가까운 곳의 물체를 보기 위해서는 수정체의 두께가 두꺼워져야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은 나이에 따라 계속 감소하여 40대 초반에 줄어드는 것이 뚜렷해지며, 50대 중반에 거의 소실됩니다. 가까운 곳을 볼 때 필요한 힘의 양보다 남아있는 힘이 부족하면 가까운 곳이 흐릿하게 보이는 증상이 나타나며, 이를 노안이라고 합니다.

2. 노안의 원인

노안의 원인은 앞에서 설명한 조절력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조절력에 대해서 여러 이론이 있는데,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설명은 눈 내부의 모양체근이라고 부르는 근육이 수축하면 그림과 같이 그 근육에 붙어있는 모양체소대라고 부르는 끈이 느슨해지면서 탄력이 있는 수정체에 당겨지는 힘이 없어져 두꺼워진다는 이론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앞에서 말한 모양체근의 힘이 줄어들게 되고, 모양체소대라는 끈도 잘 늘어나지 않게 되며, 수정체의 탄력도 줄어들어 잘 두꺼워지지 않게 됩니다. 여러 변화들 중에서 수정체의 변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2 근육에 붙어있는 모양체소대라고 부르는 끈이 느슨해지면서 탄력이 있는 수정체에 당겨지는 힘이 없어져 두꺼워진다는 이론

3. 노안의 증상

흔한 증상은 책이나 신문을 볼 때 글씨가 잘 안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가까운 곳을 보는 일을 할 때 눈이 쉽게 피곤해지고 두통이 생기기도 합니다. 보통 40대 중반에 증상이 시작되지만, 경우에 따라 이보다 더 빠르거나 느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사용이 많아지면서 증상을 빨리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老眼

4. 노안의 진단

진단은 대부분 증상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먼 곳이 잘 보이는 안경을 착용하였을 때 가까운 곳이 보이지 않고, 돋보기 안경(볼록렌즈)를 추기하였을 때 가까운 곳이 잘 보이면 진단할 수 있습니다.

5. 노안의 예방

노안은 노화에 따른 변화로 현재까지 노화를 예방할 수 없기 때문에 예방 방법은 없습니다. 가까운 곳을 보면서 눈의 피로를 심하게 느끼는 경우 돋보기를 착용하는 것이 피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돋보기를 일찍 착용한다고 노안이 더 빨리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6. 노안의 치료

노안은 노화 현상의 하나이므로 완벽한 치료법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곳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한가지 기억하셔야 할 것은 앞에서 간단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체 탄력이 떨어지거나 근육의 힘이 줄어드는 것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점점 진행합니다. 그러나, 가까운 곳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들은 노안이 진행하는 것에 따라 같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으로 노안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들을 비수술적인 방법과 수술적인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비수술적인 방법들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수술적인 방법

(1) 돋보기

가장 대표적이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다 알고 계시는 돋보기입니다. 돋보기에도 볼 수 있는 위치의 수에 따라 가장 흔한 단초점렌즈, 두 곳을 볼 수 있는 이중초점렌즈, 하나의 렌즈에서 위치에 따라 여러 곳을 볼 수 있는 다초점렌즈 등이 있습니다.

• 단초점렌즈

가까운 곳만 볼 수 있는 돋보기입니다. 근시가 있는 경우 먼 곳을 볼 때 근시 안경을 착용하고 가까운 곳을 볼 때 안경을 벗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근시의 정도에 따라 원거리용과 근거리용 두 개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렌즈가 하나이기 때문에 시야가 넓어 가까운 곳을 편하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거리에 따라 안경을 바꿔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 이중초점렌즈

이 렌즈도 흔히 볼 수 있는 렌즈로 렌즈 아래부분에 돋보기가 추가되어 있는 렌즈입니다. 하나의 렌즈로 먼 곳과 가까운 곳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중간거리를 잘 볼 수 없고, 가장 큰 단점으로 다른 사람들이 돋보기가 들어있는 렌즈임을 쉽게 알아보기 때문에 미용상 싫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 다초점렌즈

렌즈의 가운데에서는 먼 곳이 잘 보이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가까운 곳을 점차적으로 볼 수 있는 렌즈입니다. 렌즈 하나로 먼 곳, 가까운 곳, 중간 거리까지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외견상 돋보기가 들어있는 것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미용상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볼 수 있는 범위가 좁고, 보고자 하는 거리에 맞춰 렌즈를 봐야 하기 때문에 적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단점인 가격이 비쌉니다. 직업과 활용도에 따라 다초점렌즈를 불편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안과의사와 상의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콘텍트렌즈

• 콘택트렌즈로 근시나 원시 교정 후 돋보기 사용

근시, 원시, 난시 등이 있는 경우 콘택트렌즈로 교정하고 가까운 곳을 볼 때에만 돋보기를 착용하는 방법입니다. 돋보기를 가지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 이중초점콘택트렌즈, 다초점콘택트렌즈

콘택트렌즈에도 이중초점렌즈와 다초점렌즈가 있습니다. 장점은 활동성과 미용면에서 좋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곳과 먼 곳에서 교정 효과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 모노비전 (monovision)

사람이 두 눈으로 보고 있지만 주로 한 눈을 사용하고 다른 한 눈은 보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주로 사용하는 눈에 먼 곳이 잘 보이도록 콘택트렌즈를 착용하고, 다른 눈에는 가까운 곳을 잘 볼 수 있는 콘택트렌즈를 착용합니다. 쉽게 적응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으나, 적응한 후 만족도는 비교적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술적인 방법을 시행하기 전에 술후 만족도를 예측하기 위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노랗게 물든 진천으로 가는 길

모든 풍경이 한 폭의 수채화처럼 느껴지는 길상사…

Jincheon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다고 느꼈는데, 가로수 은행 나뭇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습니다.
하늘은 유난히 높아 보이고, 떠 있는 흰 구름은 무척이나 가벼워 보입니다.
푸르렀던 들판은 황금빛으로 물들고, 주변 숲들도 자기 본연의 색을 뽐내기 시작합니다.
거리엔 저마다 자기임무를 다하고 떨어진 낙엽들로 가득합니다.
우연히 넘긴 책장에서 오래 된 낙엽 한 장을 발견하곤, 잠시 옛 추억을 회상해 보며, "피식~" 하고 웃어 봅니다.
저처럼 진지하지 못한 사람을 나름 분위기 있게(?) 만들어 주는 걸 보니, 가을이 절정이긴 한가 봅니다.
여러분들의 가을은 어떠신가요?
이렇게나 완벽한 가을날 너무 독서만 하시진 마시고,
야외로 나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711

/
취재, 사진 정환준

01

아침이슬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아침, 상당공원 승강장에서 청주역에서 진천으로 가는 버스(711번)에 오릅니다.

"어서오세요~!" 밝은 미소와 함께 인사를 건네주시는 승무원께 "안녕하세요~" 라고, 화답에 인사를 합니다. 오늘은 유난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주말이라 그런지 버스 안은 무척이나 여유롭습니다. 저도 중간 뒤쯤에 자리를 잡고, 창밖을 바라보며 시내버스여행을 즐길 준비를 합니다.

도로가 한산해서인지 버스는 신나게 달리기 시작합니다.

15분여 내달리자 버스는 팔결다리 위를 지납니다. 다리 밑 물가엔 주변 나무들과 갈대들이 수면위로 비추어 멋진 반영을 연출하고, 물 가 곳곳 채 가시지 않은 물안개는 약간의 몽환적인 분위를 만들어 줍니다.

짧게 지나치는 다리 구간이 아쉬울 겨를도 없이, 창밖으론 길 가에 핀 코스모스 꽃들이 지나가는 차 바람 때문인지 꽃잎을 좌우로 마구 흔들어 대며 제 시내버스 여행을 격하게 환영해 주고, 이에 질세라 노랗게 익은 벼들도 저마다 고개를 숙이고 저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제가 마치 금의환향이라도 한 듯 기분은 한층 더 좋아집니다.

버스가 오창을 벗어나니 길 가로 황금들녘이 펼쳐집니다. 곳곳엔 추수를 시작한 농부님들이 보입니다. 봄, 여름 쉼없이 농사에 매진하였으니, 그 동안 흘린 굵은 땀 방울 만큼이나 농부님들껜 풍성한 가을이 되리라 기대해 봅니다.

02

01 상당공원 승강장에서 청주역에서 진천으로 가는 711번 버스에 오릅니다.
02 오창을 벗어나니 길 가로 황금들녘이 펼쳐집니다.

시내버스 안에서 밖으로 펼쳐진 가을 모습에 흠뻑 빠져 있을 때 쯤 어느덧, 내려야 할 '잣고개' 에 도착합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찾은 곳은 승강장에서 100미터 밑에 위치한 잣고개 산림욕장입니다. 입구 작은 연못엔 선녀와 나무꾼을 말하려는 듯한 동상들이 있고, 산으로 오르는 길은 지압로가 되어 있는데 날씨가 약간 쌀쌀해서 맨발 지압은 포기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나뭇잎 사이사이로 새어 내려오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호젓한 산책로를 걷는 기분, 참으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상쾌한 느낌입니다. 또 산책로 중간중간 이런저런 꽃들이 많이 피어있는데, 가을엔 코스모스 밖에 안보이던 저에겐 눈 앞에 핀 꽃들은 그저 신기하고 아름다울 뿐입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산책로를 천천히 걷기를 200여분, 작은 공터가 나옵니다. 주변엔 몇 가지 농기구들을 전시해 놓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원두막 같은 곳도 있습니다.

이 곳에서 봉화산의 정기를 흠뻑 들이 마시고, 다시 입구로 내려갑니다.

삼림욕장 입구에서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니, 우측으로 대흥사라는 안내비가 있습니다.

안내비를 따라 입구 길로 들어서니 양쪽으로 쭉 뻗은 침엽수들이 가을 산길을 더욱 낭만적으로 만들어 줍니다. 천천히 길을 걷다 보면 맑은 공기는 물론이거니와 다람쥐를 만나 볼 수 있는 보너스도 주어집니다.

아름다운 숲 길을 계속 따라가 보니, 대흥사 라는 절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하자마자 "와~" 라는 감탄사가 절로 나올 정도로 멋진 광경이 펼쳐집니다.

눈 앞엔 진천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탁 트인 전망과 파란하늘에 흰 구름이 더 해져 어느 유명산 못지않은 풍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곳을 지금껏 그냥 지나치기만 했던 게 못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경치를 감상하며 그 동안 마음 속에 쌓여있던 좋지 않은 감정들을 모두 날려 보냅니다. 기분이 한결 가뿐해 집니다.

가뿐해진 마음으로 절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잣고개 맨 아래에 있는 길상사로 걸음을 옮깁니다. 길상사로 내려가는 길 중간에 도당공원이란 곳이 있는데 6.25참전 기념비, 충혼탑 등이 세워져 있습니다. 6.25당시 이곳이 상당한 격전지였다고 하네요. 잠시 들러 간단한 묵념을 하고, 다시 아스팔트를 따라 고개 밑으로 내려갑니다.

고개를 다 내려오니 왼쪽으로 길상사라는 안내판이 보입니다. 입구로 들어서 보니, 양쪽으로 커다란 은행나무들이 즐비하게 서 있습니다.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들이 정말 멋스럽습니다. 떨어진 은행을 줍는 아주머니들도 보이고, 데이트를 즐기는 연인들도 눈에 띕니다. 모든 풍경이 한 폭의 수채화처럼 느껴집니다. 사진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꼭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찾고 싶은 마음이 벌써부터 들기 시작할 정도로 맘에 쏙 드는 멋진 곳입니다.

진천으로 넘어가는 잣고개 곳곳엔 멋진 가을풍경을 그려 놓은 곳들이 여러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날 너무 유명산에만 집착하지 말고, 근처에 있는 잣고개로 가족들과 함께 잠깐의 나들이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03

04

05

03 버스에서 내려 100미터 밑에 위치한 잣고개 산림욕장에 도착합니다
04 산림욕장 입구 작은 연못 있는 선녀와 나무꾼 동상
05 잣고개 맨 아래 있는 길상사, 입구로 들어서니 양쪽으로 커다란 은행나무들이 즐비하게 서 있습니다

진천으로가는 711번 버스노선

청주역	상당공원	진천
	13분 간격	

나에게 **우진**은 또하나의 **가족**, **꿈**이다

그 해 겨울은 유독 추웠던 것 같습니다.
일하던 도중 받은 전화 한 통화
'형수님 죄송합니다. 형님을 말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정민 양이식 예비승무원 가족

남편이 새만금교통 차고지 마당에 세워진 18m 망루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시작했다는 소식에 저는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고 직장 한 켠에 가서 엉엉 울기만 했습니다. 한참을 울어도 기분은 좀처럼 풀리질 않았습니다.

날도 추운데 높은 곳에 있을 남편이 안쓰럽기도 하고 왜 그렇게까지 해야만 하는지 원망스럽기도 하고 행여나 아이들이 받을 상처도 걱정스럽기만 했습니다. 남편의 일로 군의원까지 집으로 찾아와 남편을 생각해 주는 척 말을 하였지만 속내는 저에게 남편을 설득해 내려오게 하라고 강요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님을 알기에 저는 그 분들의 말도 못들은 척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족 생각은 안하는 건지 더욱더 남편이 원망스럽기만 하였습니다. 그렇게 맘을 졸이던 시간이 흘렀지만 일은생각처럼 풀리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선 남편을 비아냥하는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저마저도 위로가 되지 못하고 생활고를 핑계로 투덜대기만 하였습니다. 마음 한쪽에선 제일 많이 힘든 사람은 남편인데 내가 위로가 되어줘야지 하면서도 내가 왜 이런 시련을 겪고 있어야 하는지 하며 울컥했던 날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힘들었던 시간들이 지나고 2012년 여름 남편은 청주에 있는 우진교통으로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또 다시 상처받진 않을까 걱정도 되었지만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남편을 믿었습니다.

우진교통에 들어간 뒤 남편은 집에 내려올 때마다 늘 회사자랑이었습니다. 노동자자주관리기업으로 모든 구성원이 책임자가 되어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회사가 아주 튼튼하다고 항상 믿으라고 하였습니다.

남편이 우진교통에 간 뒤로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기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남편은 자신을 배려해주고 염려해주시는 우진교통 선배님들께 항상 감사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우진교통을 믿고 열심히 일하는 남편을 따라 저희 가족도 이제 청주로 갑니다. 1년 넘게 혼자서 고생하였을 남편.. 가족이 옆에 있다면 더 맘 편히 일할 수 있을 꺼라 생각합니다.

나고 자란 고향 부안을 떠난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제 2의 고향이 될 청주에서의 새로운 삶도 밝을 꺼라 기대해 봅니다.

안전운전은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이번 호에는 안전운전관련 사례소개를 합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다시한번 마음가짐을 바로잡는 편안한 시간되시길 바랍니다.

출처 _ 고객서비스지원부 장기무사고 승무원

그동안 우리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면 방법을 마다않고 실천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성원들의 열정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목표달성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목표에 대한 기대와 좌절이 교통사고증가 원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통안전관리위원회의 사업목표가 2년 연속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일부 승무원이기는 하지만 안전운행에 대한 생각의 차이 때문에 교통안전관리위원회의 안전운전지침을 무시하고 오직 자신의 경험과 과거 잘못된 운전습관을 고집하며 운행한 것이 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고경험이 있는 승무원이 또 다시 사고를 일으키고 약 40%의 승무원이 전체 사고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면 잘못된 운전습관이 교통사고 발생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올바른 운전습관을 키우고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지는 자세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가 피해자로서 평생을 후유증과 죄책감으로 후회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무서운 형벌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나의 경험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며, 무책임한 행동과 부분별한 운전방식으로 중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어리석음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글을 씁니다.

저는 1989년 우진교통의 모태인 동원교통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입사는 결정되었지만 운전경험이 남들보다 부족함을 잘 알고 있는 나는 망설였습니다. 안전운전이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날을 고민하였습니다. 시내버스는 화물차와는 다르게 사람을 이동시키는 업무로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고 사고 발생시 본인 자비로 처리해야 한다는 사실이 입사를 망설이게 하였습니다.

여러 날을 고민했으나 별다른 방법은 없고 스스로 안전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방법 이외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으며, 안전운전을 위한 5개항을 만들었습니다. 행여나 스스로 만든 규칙이라고 지키지 않을까 두려워 더욱 엄격하게 지켰으며 결과적으로 시내버스운전 19년 중 18년을 장기무사고운전을 하게 된 자랑하고 싶은 안전운전 5개항이 되었습니다.

나에게 **행복을 안겨준 안전운전 5개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 나는 초보운전자라는 마음가짐
숙련된 운전자보다 더 조심해야 하고,
내가 먼저 양보해야 한다는 마음가짐

둘째 : 교통법규를 준수하자
특히 신호위반 / 과속운전을 삼가하자라는 마음가짐

셋째 : 경쟁운전을 하지말자
운전이 미숙한 사람이 숙련된 운전자와
경쟁을 하면 사고로 이어진다는 마음가짐

넷째 : 다른 운전자보다 종점에 10분 늦게 들어오자
남들보다 10분 더 일하겠다는 생각으로
운전하자 라는 마음가짐

다섯째 :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자
새벽에 서두르는 것은 교통사고의 원인이다.
라는 마음가짐

안전운전5개항은 사소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지키면 교통사고는 분명하게 예방됩니다.

꼭 안전운전 5개항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안전운전을 하겠다는 다짐과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운전습관을 갖는다면 교통사고는 예방되고 행복이 찾아온다고 확신합니다. 구성원 여러분! 안전운전으로 교통사고 예방하고 행복하십시오.

조직력을 바탕으로 하는 우진 traffic을 소개합니다

소개 _ 야구동호회 홍보담당 신정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구동호회 "우진 Traffic" 홍보담당 신정섭입니다. 야구를 좋아하는 한사람으로서 입사 전부터 사회인 야구활동을 하며 그 매력에 푹 빠졌던 1人입니다. 회사에 많은 동호회가 있지만 왜! 야구동호회는 없을까 하고 창단 전에 잠시 생각해보았던 기억이 나네요. 2012年에 창단해 보려하다가 못하고 2013年 우연치않게 야구를 할 것 같지도 않은 구성원 한분 때문에 창단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동호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 5089호 김태명 승무원의 적극전인 권유로, 참여자가 소수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창단했습니다. 고객지원부에 명예총감독님이 계시고 시설관리부 2人, 자주관리실에 1人, 승무직에서 11人, 그 외 몇 분 더 참여 준비 중에 계신 분도 있고해서 현재 계속 늘어나는 중입니다. 다같이 함께하는 운동으로 서로 소통하여 하나가 되자는 생각으로 승무직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닌 시설관리부와 자주관리실 구성원분들도 함께하는 동호회로 탄생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야구는 어떤 스포츠인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재미있어 하고 열광하며 환호하는 것인까요?

야구는 다른 구기 종목과 달리 게임종료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공이(Ball) 아닌 사람이 득점을 하고 정해진 룰(rule)에 의해 9명의 선수들이 맡은 역할을 다하고 수행하는 조직력을 바탕으로 하는 단체운동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상생활에서의 쌓인 스트레스(stress)를 눈으로 보고 즐기며 해소할 수 있는 스포츠이기에 많은 이들이 매력을 느끼고 또한 직장 등의 조직사회에서 인간관계에 부담없이 공유할 수 있는 화제를 제공해주며 그 화제에 대한 즐거움을 자연스럽게 서로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을 느끼는 듯 싶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기만해도 즐거운 야구를 직접해보면 어떨까요? 도전해보세요. 현재 단체장비도 모두 준비가 되었고(2셋트) 저희가 운동할 수 있는 야구장도 섭외되어 오전근무 끝나고 하절기 오후2시, 동절기 오후1시 30분부터 운동을 하고 있으며 월요일~금요인 중 아무 때나 시간이 나면 참여할 수 있고 주말에는 친선경기도 합니다.

내년에는 사회인야구리그에 가입하여 운동에 재미를 더 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고요 또한 대외적인 활동으로 자주관리기업 우진교통을 알리며 우리 분야가 아닌 여러 방면에 종사하는 분들과의 대인관계 형성 및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진취적인 동호회로 발돋움하고자 합니다.

구성원 여러분! 놀러 오세요!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들 중 함께 나누면 더 감동이 될 것 같은 이야기, 색다른 이야기, 좋은 이야기들을 다시보기로 꾸며봅니다.

은빛청춘들의 역사문화기행

- 고령자 구성원의 자주관리기업에 대한 자긍심 배양
- 존중과 배려의 공동체문화로 고령자구성원의 정서적 안정감 확보
- 선후배간 문화적 이질감 완화로 소통이 원활한 아름다운 관계 형성

장범주 _ 소식지 편집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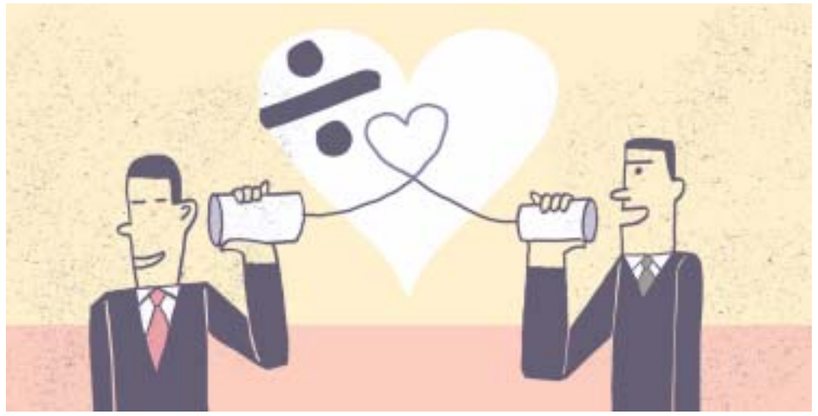
위의 세가지 취지로 준비된 「은빛청춘들의 역사문화기행」이 2013년 10월 17일~18일/21일~22일 총 2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만55세 이상의 구성원(선배님들이 고령자라는 말을 꼭 빼달라고 당부하셨다)들이 68명이었다.

선배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추억과 회한의 자리에 함께하며 의미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은빛 선배들이 앞으로도 청춘의 열정을 빛내주심에 의심에 여지가 없다는 걸 확인하는 여행이었다.

선배님들, 은빛청춘으로 파이팅!!!

1 국립5 · 18묘역 2 국립5 · 18묘역참배 3 군산식당 아침식사 4 지석묘 5 채석강 6 내소사 숲길 7 내소사 대웅전 8 동국사

현장과 함께 하는 노동조합



서로를 배려한다는 것 따스함을 나눈다는 것

예전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다. 파업과 압류사태의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에게는 밥 한 끼니를 걱정하고 물 한모금이 소중했던 날들이 있었다. 이런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다른 회사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동료애를 우리는 더 많이 느끼는 것 같다. 이렇게 끈끈한 동지애를 가지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것은 우진 동료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이 마음을 노동조합에서는 더 열심히 실천하고자 한다.

시내버스 승무원들은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 교통정체가 심한 명절 밑에 더 많은 고됨을 느끼며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노동조합 간부들은 그 고됨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싶은 마음에 간단한 간식 등을 준비해서 노선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특히 명절에는 가족들과 함께여야 하지만 우리의 직업이 그렇지 못하기에 오히려 식사를 거르게 되는 경우가 빈번한 상황이다. 그래서 김밥이나 따뜻한 음료 등을 준비해서 나눠주는 일을 한다. 더운 여름, 종점지에서 먹는 과일화채는 이젠 우진만의 별미로 각광받고 있다.

여러 문제의 해결은 소통을 통해 해결하게 된다. 노동현장에서 건강하게 일하고 있는 현장 동료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의 마음이 변함없다면 앞으로도 굳건한 우진교통 노동조합이 되지 않을까한다.

임경빈 _ 노동조합대의원

노동조합 소식지(마중물 7호) 발간 및 현장배포 (13, 07, 02)
노동조합과 조합원 참여

돌봄지부 진천원광은혜의집 노동자 결의대회 (13, 07, 04)
노동조합 간부 참여

불법대선개입! 민주주의 파괴! 노조파괴 개입의혹! 국정원 해체! 촛불문화제 (13, 07, 05)

제2회 정식품 · 우진교통 친선 탁구대회 (13, 07, 06)
노동조합 및 탁구동호회 참여

(고) 정법영 열사 제35주기 추모식 (13, 07, 08)
노동조합 참여

공공운수노동자 단결과 연대의 밤 (13, 07, 11)

노동조합 소식지(마중물 8호) 발간 및 현장배포 (13, 07, 23)
노동조합과 조합원 참여

제2차 임시 대의원대회 (13, 07, 24)
1. 노동조합 활동보고
2. 진별금 관련 진행보고
3. 동일운수 노동자 천막농성 관련의 건

동일운수 노동자(천막농성) 지지연대 (13, 07, 24)
노동조합 간부 참여

현장순회(수박화채) (13, 07, 26)
노동조합과 조합원 참여

노동조합 소식지(마중물 9호) 발간 및 현장배포 / 현장순회(수박화채) (13, 07, 31)
노동조합과 조합원 참여

노동조합 확대간부 연석회의 (13, 08, 01)
1. 동일운수 노동자 투쟁 관련 내용 및 향후방향 논의

제5주기 (고) 변정룡 전 지부장 추모제 (13, 08, 02)
노동조합과 조합원 참여

동일운수 노동자(천막농성) 결의대회 (13, 08, 05)
노동조합 간부 참여

동일운수 노동자(천막농성장) 결의대회 (13, 08, 08)
노동조합과 조합원 참여

현장순회(수박화채) (13, 08, 09)
노동조합과 조합원 참여

현장순회(수박화채) (13, 08, 13)
노동조합과 조합원 참여

동일운수 노동자(천막농성) 투쟁 승리를 위한 청주시민 및 버스노동자 결의대회 (13, 08, 22)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 참여

쌍용차 해고자 복직! 비정규직 정규직화! 국정조사 실시! 범국민대회 (13, 08, 24)
노동조합 간부 참여

노동조합 소식지(마중물 10호)발간 및 현장배포 (13, 08, 28)
노동조합과 조합원 참여

공약파기 국민기만 규탄! 민영화 저지! 공공성강화! 총복결의대회 (13, 09, 06)
노동조합 간부 참여

현장순회(도시락) (13, 09, 17)
노동조합 간부 참여

공채25기 신입사원 노동조합 교육
1. 교육 1 : 노동조합 연혁, 노동조합 조직현황, 노동자 연대 활동
2. 교육 2 : 구성원으로서의 나의 역할, 구성원으로서의 마음가짐과 예절
3. 교육 3 : 동영상, 노동조합 역할론
4. 단합의 마당 : 족구, 배구(선택)

노동조합 확대간부 연석회의 (13, 09, 24)
1. 동일운수 노동자 투쟁 관련 내용 및 향후방향 논의

Woojin Sketchbook

사진으로 보는 우진의 이모저모

미래소위원회 | 13.07.02

성장소위원회 | 13.07.10

교통안전관리위 13.07.03

제17차 경영설명회 | 13.07.07

제17차 경영설명회 | 13.07.07

제17차 경영설명회 | 13.07.07

시설관리부 교육 | 13.07.18

시설관리부 교육 | 13.07.18

민주당 김현미 국회위원 우진교통 방문 | 13.07.22

민주당 김현미 국회위원 우진교통 방문 | 13.07.22

현장격려방문(화재전달) | 13.07.26

현장격려방문 | 13.07.26

미래성장위원회 워크샵 | 13.08.29

자주관리교실 1기 졸업생 봉사활동 |

미래성장위원회 워크샵 | 13.08.29

서원대학교 대표강의 | 13.09.05

제18차 경영설명회(공채25기 입사) | 13.09.16

제18차 경영설명회(교통안전관리위 결의시간) | 13.09.16

견습사원 평가 및 산행 | 13.09.27

견습사원 평가 및 산행 | 13.09.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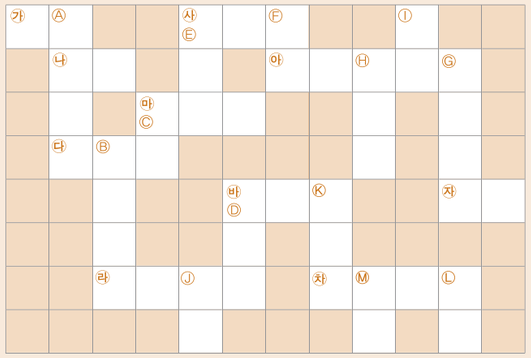
현장자치모임 대표간담회 | 13.09.27

옥천신문 대표강의 | 13.10.02

옥천신문 대표강의 | 13.10.02

공채25 성희롱 예방교육 | 13.09.04

2013 17th Autumn 퍼즐 Puzzle



가로문제

가. 여름과 겨울의 사이
나. 손가락 끝부분에 있는 곡선 무늬
다. 조선 시대의 궁궐로 원래의 명칭은 "경운궁"이지만, 1907년 고종이 순종에게 양위한 뒤 이곳에 살면서 명칭 바꿈
라. 여럿이 무리를 지어 다니고, 따로따로 다니는 모양
마. 어릴 때는 아가미로 수중호흡을 하면서 물에서 살고, 성장하면 폐와 피부를 통하여 호흡을 하면서 육상에서 살아감
바. 동굴의 천장에 고드름처럼 매달린 원추형의 광물질
사. 성명을 적어서 가슴에 다는 표
아. 차량을 주정차후 방향을 바꿀 때 켜야하는 것.
자. 마음을 지언스럽게 안으로 몰입시켜 내면의 자아를 확립하거나 종교 수행을 위한 정신집중을 일컫는 말
차. 술에 몹시 취하여 정신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

세로문제

A. 고구려때 여름과 가을에 걸쳐 터진 수나라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낸 최고의 전쟁영웅 (살수대첩의 지휘관)
B. 어떤 사물에 대하여 바로 말하지 아니하고 빗대어 말하여 알아맞히는 놀이
C. 활과 화살을 이용하여 일정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과녁을 향해 쏘아 득점을 겨루는 올림픽종목이다
D. 무릎과 발목 사이의 뒤쪽 근육 부분
E. 이력을 적은 문서
F. 어떤 명목을 붙여 주의나 주장 또는 처지를 앞에 내세움
G. 등산 밑이 어둡다는 뜻
H. 대도시에 있어서 교통의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지하에 만든 교통수단
I. 어떤 목표물에 주의를 집중하여 봄
J. 아침, 점심, 저녁과 같이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먹는 밥 (○○를 떼우다)
K. 얼음을 저장하기 위하여 만든 창고
L.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지어주는 것
M. 술을 먹고 자기의지를 벗어나는 행동

퍼즐당첨자 명단

제16호 퍼즐 추첨 당첨자입니다.
당첨된 분께는 우진교통에서 제작한 충전된 교통카드를 배송 해 드립니다.

최금자 (상당구 금천동)　　장은진 (상당구 용암동)
최상민 (상당구 용정동)　　김민자 (흥덕구 가경동)
박지영 (흥덕구 강서동)　　박선미 (상당구 용암1동)

2013. 07 ~ 2013. 10

우진의 희노애락

喜怒哀樂

모든 괴로움은 어디서 오는가?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심에서 오며,

모든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심에서 온다.

조의를 표합니다

최재석　형제상 (13. 07. 19)
박희철　빙부상 (13. 08. 01)
주재용　형제상 (13. 08. 15)

축하합니다

장태섭　자녀결혼 (13. 08. 03) / 이원규　본인회갑 (13. 08. 29)
박성석　본인결혼 (13. 09. 01) / 윤문수　본인회갑 (13. 09. 09)
정창호　본인회갑 (13. 10. 11)

수상 및 포상 〈축하박수 보냅니다〉

• 100일 무사고달성 현장자치조 포상
– 한걸음(2조) / 13. 07. 03
– 뛰는 거북(6조) / 13. 08. 08
• 200일 무사고달성 현장자치조 포상
– 디딤돌(7조) / 13. 07. 03

우진교통과 함께 하는 새로운 식구들 "환영합니다."

• 공채25기 승무원 : 고광명, 강기구, 김상수, 박득섭, 박병구, 백효상, 박득섭, 유은노, 임포식, 정홍식, 최명환 (13. 10. 03)
• 경영팀 : 김운선 (13. 10. 01)

항상 행복하세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가장 선호받는 회사로
늘 자리 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우진교통(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75번지
TEL. 043-297-4011 FAX. 043-297-4010
www.wjbus.co.kr